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1.9

S&P, 나스닥 막판 반전에 상승렐리 연장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상승 렐리 연장

•미 증시는 최근 급반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목요일 제롬파월 등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앞두고 관망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 S&P와 나스닥 지수는 2년여 만에 가장 긴 상승렐리를 보였으나 지난 주와 달리 이번 주 상승폭은 제한적. 우선 기술적으로는 직전 고점과 100일 이동평균선(4,400p)의 강한 저항이 추가 상승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줘. 또한 지난 주 급격히 나타난 국채 수익률 하락세가 주식, 채권 등 주요 자산군을 중심으로 역대급 숏커버링을 유발시킨 단기 수급 이벤트가 마무리됐기 때문. 다만 금일 10년물 국채수익률 입찰이 견조한 수요 속에 마무리되면서 10년물과 2년물 간 강세 플래트닝(Bull Flattening) 나타나며 IT와 부동산 등이 강세. (다우 -0.12%, 나스닥 +0.08%, S&P500 +0.13%, 러셀2000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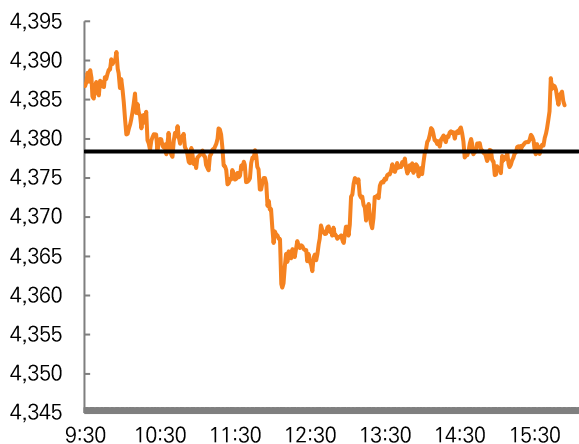
특징 종목: IT, 9거래일 ↑

-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IT(+0.64%), 부동산(+0.58%) 등 5개 업종은 상승. 특히 IT는 지난 10월 27일 이후 9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하며 10%나 올라. 반면 에너지(-1.22%), 유틸리티(-0.73%) 등 6개 업종은 하락.
- (상승) 킨드러홀딩스(+13.56%), 로블록스(+11.96%),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10.81%) 등은 시장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 특히 로블록스의 경우 예약이 전년대비 20% 증가하며 비디오 게임에 대한 지출이 견조함을 나타내.
- (하락) 슬립넘버(-29.91%), 업스타트 홀딩스(-27.27%), 어레이 테크놀로지스(-18.33%),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18.39%), 토스트(-14.58%), 로빈후드(-14.29%), 루시드그룹(-8.37%) 등은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내놓으며 큰 폭 하락.

한국 증시 전망: 슈링크플레이션

•MSCI 한국 지수 ETF는 1.82%, MSCI 신흥 지수 ETF는 0.6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7.28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8% 상승. KOSPI는 0.2~0.5%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부진과 각종 비용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기증은 기업 실적 전망을 어렵게 하는 부분. 실제 국내 상장사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11/3일 기준)은 전년대비 각각 -30%,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 내년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연초대비 6% 정도 추정치가 하향되는 중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21.62	-0.91	상해종합	3,052.37	-0.16
KOSDAQ	811.02	-1.62	홍콩항셱	17,568.46	-0.58
DOW	34,112.27	-0.12	인도센섹스	64,975.61	+0.05
NASDAQ	13,650.41	+0.08	유로스톡스 50	4,178.49	+0.60
S&P 500	4,384.25	+0.13	영국	7,401.72	-0.11
캐나다	19,526.41	-0.25	독일	15,229.60	+0.51
일본	32,166.48	-0.33	프랑스	7,034.16	+0.69


 변화 요인

① 어닝시즌 ② 수요

미 증시는 최근 급반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목요일 제롬파월 등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앞두고 관망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 S&P와 나스닥 지수는 2년여 만에 가장 긴 상승랠리를 보였으나 지난 주와 달리 이번 주 상승폭은 제한적. 우선 기술적으로는 직전 고점과 100일 이동평균선(4,400p)의 강한 저항이 추가 상승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줘. 또한 지난 주 급격히 나타난 국제 수익률 하락세가 주식, 채권 등 주요 자산군을 중심으로 역대급 숏커버링을 유발시킨 단기 수급 이벤트가 마무리됐기 때문. 다만 금일 10년물 국제수익률 입찰이 건조한 수요 속에 마무리되면서 10년물과 2년물 간 강세 플래트닝(Bull Flattening) 나타나며 IT와 부동산 등이 강세.

어닝시즌 키워드: 수요

3분기 어닝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S&P 500 기업 중 약 88%가 실적 발표를 완료.*8
일 오전 현재(현지시간) 이 중 약 82%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보다 나은 이익(EPS)을 발표하며 3분기 추정 EPS는 전년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는 1.2% 감소할 것이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 또한 지난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뒤로하고 1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시장은 어닝시즌 초반과 달리 현재, 기업들의 수요부진 또는 수요둔화 우려에 대한 가이던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 실제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82%에 달하지만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은 48.5%로 2019년 3분기(47.8%)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 또한 팩트셋에 따르면 3분기 동안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향후 이틀 동안 평균 5.2%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5년 평균의 2배 이상이며 2011년 2분기 중 이틀 동안 주가가 8% 하락한 이후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

또한 실적 발표 후 진행되는 Earnings Call에서 ‘수요약화(weak demand)’에 대해 우려하는 상장사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 상황. 반면 정리해고나 노동력 부족 같은 우려는 지난 해 대비 크게 줄어들어.

마지막으로 9월 도매재고가 시장 예상(MoM +0.0%)을 상회한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고판매비율은 8월 1.36에서 9월 1.33으로 하락. 이는 기업들이 매크로 불확실성과 전방 수요 둔화 우려로 재고확충에 소극적이라는 의미. 실제 애플과 이베이 등은 연말 보수적 가이던스 내놔.

국제 유가 약세

국제유가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약세 흐름 이어가. 최근 이틀 동안 7%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이는 수요부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던 지난 3월, 5월 그리고 10월 초 이후 네 번째 기록. 국제유가는 그 동안 사우디,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과 중동 지정학적 불안 등의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컸지만, 최근 시장은 수요둔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 실제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 석유 소비가 하루 1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이전 전망인 10만 배럴 증가를 뒤집은 것. 또한 내년 미국 휘발유 소비가 1% 감소해 20년 만에 1인당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여기에 풍부한 재고와 생산량도 가격 하락 압력 키워. 지난 주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거의 1,200만 배럴에 달해 2020년을 제외한 5년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 또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거의 1,300만 배럴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이에 미국의 가솔린 선물 가격은 3주 만에 최저치인 갤런당 2.2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유틸리티 약세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IT(+0.64%), 부동산(+0.58%) 등 5개 업종은 상승. 특히 IT는 지난 10월 27일 이후 9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하며 10%나 올라. 반면 에너지(-1.22%), 유틸리티(-0.73%) 등 6개 업종은 하락.

(상승) 킨드릴홀딩스(+13.56%), 로블록스(+11.96%),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10.81%) 등은 시장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 특히 로블록스의 경우 예약이 전년대비 20% 증가하며 비디오 게임에 대한 지출이 견조함을 나타내.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5.36%)는 인기 게임인 ‘Grand Theft Auto VI’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란 소식에 상승. 일라이릴리(+4.14%)는 당뇨병 약물인 Tirzepatide가 켈바운드(Zepbound)라는 이름으로 비만 치료를 위한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하락) 슬립넘버(-29.91%), 업스타트 홀딩스(-27.27%), 어레이 테크놀로지스(-18.33%),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18.39%), 토스트(-14.58%), 로빈후드(-14.29%), 루시드그룹(-8.37%) 등은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내놓으며 큰 폭 하락. 특히 슬립넘버는 직원 감축과 매장 폐쇄 등 고강도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 이베이(-2.00%)는 시장 예상보다 낮은 연말 매출 가이드언스 발표에 약세. 피스커(-8.70%)는 3분기 실적 발표일은 13일로 연기하며 약세.

상품 및
FX시장 동향

유가 약세 지속

(유가) 국제유가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약세 흐름 이어가. 최근 이틀 동안 6% 넘게 하락을 보였는데, 이는 수요부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던 지난 3월, 5월 그리고 10월 초 이후 네 번째 기록. 국제유가는 그 동안 사우디,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과 중동 지정학적 불안 등의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컸지만, 최근 시장은 수요둔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 실제 미 에너지정보청(EIA)는 미국의 석유 소비가 하루 1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이전 전망인 10만 배럴 증가를 뒤집은 것. 또한 내년 미국 휘발유 소비가 1% 감소해 20년 만에 1인당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여기에 풍부한 재고와 생산량도 가격 하락 압력 키워. 지난 주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거의 1,200만 배럴에 달해 2020년을 제외한 5년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 또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거의 1,300만 배럴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이에 미국의 가솔린 선물 가격은 3주 만에 최저치인 갤런당 2.2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한국
주식시장 전망

슈링크플레이션

MSCI 한국 지수 ETF는 1.82%, MSCI 신흥 지수 ETF는 0.6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7.28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8% 상승. KOSPI는 0.2~0.5%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3분기 실적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늘어나는 기업들의 고민에 따라 증시의 방향성도 오락가락 하는 모습.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부진과 각종 비용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은 기업 실적 전망을 어렵게 하는 부분. 실제 국내 상장사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11/3일 기준)은 전년대비 각각 -30%,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 내년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연초대비 6% 정도 추정치가 하향되는 중



농산물 가격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09	대형 가치주 ETF (IVE)	-0.04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30
소매업체 ETF (XLY)	-0.18	소형 가치주 ETF (IWN)	-1.09
온라인소매 ETF (EBIZ)	-0.93	대형 성장주 ETF (VUG)	+0.43
미국 인프라 ETF (PAVE)	+0.08	중형 성장주 ETF (IWP)	-0.14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1.18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0.21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21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77	미국 국채 ETF (IEF)	+0.43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99	하이일드 ETF (JNK)	+0.04
바이오섹터 ETF (IBB)	-1.49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35	물가연동채 ETF (TIP)	+0.22
반도체 ETF (SMH)	+0.3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7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IT	3,125.63	+0.64	+5.45	+4.50
부동산	216.35	+0.58	+3.71	+2.76
산업재	856.86	+0.27	+2.64	+0.51
소재	485.34	+0.26	+1.30	-1.13
커뮤니케이션	228.77	+0.12	+3.16	-0.10
금융	557.92	-0.11	+3.11	+1.56
헬스케어	1,492.60	-0.14	+2.66	-1.50
경기소비재	1,283.04	-0.25	+4.79	+1.77
필수소비재	726.37	-0.42	+1.31	+3.10
유틸리티	308.38	-0.73	+0.71	+6.15
에너지	632.87	-1.22	-2.61	-3.64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5.33	-2.30	-6.03	Dollar Index	105.526	-0.02	-1.27
브렌트유	79.54	-2.23	-5.72	EUR/USD	1.0709	+0.08	+1.32
천연가스	3.11	0.00	-10.13	USD/JPY	151.01	+0.43	+0.04
금	1,957.80	-0.91	-1.61	GBP/USD	1.2286	-0.11	+1.10
은	22.73	+0.18	-0.70	USD/CHF	0.8993	-0.09	-0.94
알루미늄	2,263.50	-0.07	+1.21	AUD/USD	0.6402	-0.53	+0.14
전기동	8,142.00	-0.54	+0.40	USD/CAD	1.3795	+0.20	-0.44
아연	2,610.00	+1.64	+4.40	USD/RUB	91.8501	-0.39	-0.81
옥수수	476.00	+1.39	0.00	USD/BRL	4.9096	+0.63	-2.55
밀	592.25	+3.46	+5.03	USD/CNH	7.2871	+0.08	-0.66
대두	1,365.75	+0.35	+3.94	USD/KRW	1,310.60	+0.21	-3.44
커피	172.10	+1.53	+8.34	USD/KRW NDF1M	1,307.28	+0.33	-2.9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511	-5.55	-22.31	스페인	3.663	-5.50	-17.50
한국	4.030	-2.60	-25.50	포르투갈	3.362	-3.00	-12.60
일본	0.857	-2.70	-10.40	그리스	3.901	-5.90	-26.30
독일	2.617	-4.10	-14.70	이탈리아	4.480	-7.00	-24.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